

보도시점 2026. 6. 11.(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6. 6. 10.(수)

전기차 공공충전기 봄철 주말 충전요금 할인 실적 공개

-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충전 사용 건수 약 9.2% 상승, 총 7,500만 원 할인 효과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국 단위의 전기차 사용자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행된 ‘봄·가을 주말·공휴일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의 최종 실적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할인 정책은 지난 4월 16일 시행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과 연계해 추진되었다. 해당 개편안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의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금액만큼 공공 충전요금을 할인하여 해당 시간대의 충전을 유도하고자 본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할인은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주말·공휴일 총 17일 중 낮 11시부터 14시까지 3시간 동안 할인이 적용되었다. 해당 시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를 충전한 경우에는 킬로와트시당 40.1~48.6원*이 할인된 요금이 적용되었다.

* 전체 충전요금의 약 12~15%

이번 할인 실적 결과에 따르면, 할인이 적용되는 총 17일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충전기 약 1만 3,000기에서 총 7만 9,114건의 충전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총 7천 545만 8,441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었다. 일평균 충전 사용 건수는 4,654건으로 할인 적용 전(일평균 4,261건) 대비 약 9.2% 상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봄철 공공 충전기 요금 할인 적용을 위해 충전시설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할인 정책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많은 시간대의 전력 사용을 장려하고 사용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또한, 향후 개편될 계시별 연동 충전요금제 도입에 앞서 요금부과 및 운영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중요한 시작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건수 및 금액.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판규 (044-201-6880)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규 (044-201-6885)



(단위: 건, 원)

구분		할인기간(4.18~5.31)		할인전 일평균	비고
		계	일평균		
건수	총 사용 건수(11~14시)	79,114	4,654	4,261	일평균 이용 건수는 할인전보다 9.2% 상승
	기후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60,920	3,584	3,340	
	한국전력	18,194	1,070	921	
금액	총 할인금액	75,458,441	4,438,732	-	
	기후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61,260,591	3,603,564	-	
	한국전력	14,197,850	835,168	-	